

한국 假花의 종류와 특성

黃水路*

〈목 차〉

- I. 서론
- II. 한국 고전의례의 가화 사용 관습
- III. 한국 가화의 종류
- IV. 결론

국문요약

인류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꽃이 등장하고, 그 꽃은 신성함과 아름다움과 번영의 소망을 나타내었다.

자연계의 꽃이 오묘한 자연의 섭리로 빚어진 자연의 정화라면, 가화(假花)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숭모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인공의 극치이다. 자연계의 꽃은 주어진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한정된 생명과 형태에 고정될 수밖에 없지만, 가화는 인간이 바라는 형태로 언제든지 손끝에서 피워낼 수 있고, 또 쉬 시들어 없어지지도 아니한다. 이처럼 가화는 자연 상태로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꽃의 형식으로 담아내는 예술로 거기에는 인간의 이상과 소망이 담겨져 있다.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손끝에서 피워내는 인공의 꽃은 그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본떠 바치는 지극한 공경의 표현일 뿐 아니라, 인간의 이상과 바람의 육화(肉化)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이미 가화를 만들어 관식(冠飾)이나 의물(儀物)의 장식으로 사용하였고,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채화(綵花)나 지화(紙花) 등을 만들어 궁중이나 민간의 의례에 널리 사용하여, 그 공교하고 현란한 기예를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예술대학원 석좌교수, 궁중채화연구소 소장.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화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데는 꽃으로 상징되는 아름다움을 인간의 기술로 완벽하게 실현하려는 미의식이 들어 있다.

『삼국유사』에 묘사된 만불산의 형상은 침향목을 깎아 산을 만들고 궁실과 누대를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침향산(沈香山)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나무와 새와 짐승들이 바람따라 하늘거리는 것은 또한 수파련이나 거대한 준화, 그리고 사권화 등의 잠화를 상상하게 한다. 고려나 조선시대의 궁중 연회에서 유소보장을 드리운 지당판(池塘板)이나 거대한 준화(樽花) 등의 가화(假花)에 모두 벌이나 나비와 새들이 움직이도록 장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신라에서 만든 만불산(萬佛山)이 이러한 후대의 의식용 가화의 원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신라시대의 만불산과 마찬가지로 고려와 조선의 궁중의 의례에서 사용된 사권화(絲圈花)를 비롯한 각종 잠화(簪花)와 수파련(水波蓮) 등 각종 상화(床花)는 단순히 꽃이라는 자연물의 모방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삶의 이상을 나타내었다. 거기에는 꽃의 형태만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꽃과 잎과 과일, 나아가서 꽃에 달려드는 벌과 나비, 나무에 모여드는 갖가지 상서로운 새가 꽃과 함께 제작되고, 이들 하나 하나는 사람의 동작이나 주변의 환경에 따라 생동하는 느낌을 자아내었다. 한국의 가화는 만불산, 지당판, 수파련, 별가화 등과 같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세계를 그려내면서, 한편으로 동적인 생동감을 표현하는데 기술적으로 뛰어난 특장을 발휘하였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고전의례에 사용된 가화의 이상과 기술을 복원하여 발전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주제어: 가화(假花), 잠화(簪花), 상화(床花), 준화(樽花), 만불산(萬佛山)

I. 서론

꽃은 자연의 오묘한 조화로 만들어진 아름다움의 극치이다. 자연계의 모든 식물은 그 성장의 최고조에 달하여 꽃을 피운다. 꽃을 피우는 것은 생명이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체의 고귀하고 거룩한 현상이다.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그 생명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은 본디 아름다운 일이거니와, 꽃은 그러한 왕성한 생명력의 극치이다. 그러기에 인류는 꽃을 사랑해 왔다. 인류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꽃이 등장하고, 그 꽃은 신성함과 아름다움과 번영의 소망을 나타내었다.

자연계의 꽃이 오묘한 자연의 섭리로 빚어진 자연의 정화라면, 가화(假花)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숭모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인공의 극치이다. 자연계의 꽃은 주어진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한정된 생명과 형태에 고정될 수밖에 없지만, 가화는 인간이 바라는 형태로 언제든지 손끝에서 피워낼 수 있고, 또 쉬 시들어 없어지지도 아니한다. 이처럼 가화는 자연 상태로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꽃의 형식으로 담아내는 예술로 거기에는 인간의 이상과 소망이 담겨져 있다.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손끝에서 피워내는 인공의 꽃은 그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본떠 바치는 지극한 공경의 표현일 뿐 아니라, 인간의 이상과 바람의 육화(肉化)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이미 가화를 만들어 관식(冠飾)이나 의물(儀物)의 장식으로 사용하였고,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채화(綵花)나 지화(紙花) 등을 만들어 궁중이나 민간의 의례에 널리 사용하여, 그 공교하고 현란한 기예를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화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데는 꽃으로 상징되는 아름다움을 인간의 기술로 완벽하게 실현하려는 미의식이 들어 있어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각종 의례에서 사용된 가화의 종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화예(花藝) 미의식의 한 특성을 논하고자 한다.

II. 한국 고전의례의 가화(假花) 사용 관습

1. 고대의 가화 사용 관습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가화를 사용해 왔다. 한국의 문화사에 있어서 가화

는 단순한嗜好나 장식품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가화는 관식(冠飾)이나 복식(服飾) 등의 장신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의례나 식전을 장식하는 치장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특히 의례(儀禮)에 있어서 신분을 표시하고 경사나 영예의 표지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신전(神殿)이나 특별한 구역을 표시하는 상징물로도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복식이나 장신구로서 귀금속으로 만든 가화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 백제 고이왕 27년(260)에 관제를 정하여 6좌평과 16품의 관등을 둘 적에 6품 나솔(奈率) 이상 관복에 “은화(銀花)로 관식(冠飾)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였으며, 동왕 28년에는 왕이 “금화(金花)로 장식한 오라관(烏羅冠)을 쓰고 흰 가죽 띠에 검은 가죽 신발을 신고서 남당(南堂)의 대청에 좌정하였다”¹⁾고 하였다. 백제의 왕과 6품 이상의 관원이 관의 장식으로 사용한 금화(金花) 또는 금은의 금속으로 만든 꽃은 가화인데, 신분에 따라 금화와 은화로 구별되었다. 『삼국지(三國志)』의 『동이전(東夷傳)』에 부여 사람들이 “금은으로 모자를 장식하였다”²⁾는 구절이 있는데, 백제에서 금화와 은화를 관식으로 사용하는 관습과 관련하여 유사한 형태의 가화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유의하여 볼 것이 있다. 『삼국사기』 직관조(職官條)에는 신라의 군사제도에 각 계급을 나타내는 ‘화(花)’라는 기물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맹수의 모피(毛皮)와 맹금(猛禽)의 깃으로 만들어 깃발을 다는 장대에 매어 두는 것이라고 하였다.³⁾ 그 정체가 분명하지 않지만 역시 가화의 하나로 짐작된다. 깃발을 장식하는 소품인 이 가화 역시 신분에 따라 각기 그 재료와 크기를 달리하였다.

불교에 있어서 꽃은 불법의 오묘한 진리와 해탈의 경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그러므로 신라시대의 불교 의식에도 널리 가화가 사용되었다. 『삼국

1) 『三國史記』卷第24 百濟本紀 第2 古爾王 二十七年 二月, “下令六品已上服紫 以銀花飾冠。十一品已上服緋 十六品已上服青。”
 2) 『三國史記』卷第24 百濟本紀 第2 古爾王 二十八年 正月 初吉, “王服紫大袖袍 青錦袴 金花飾烏羅冠 素皮帶烏韋履 坐南堂廳事。”
 3) 『三國志』魏志 東夷傳 夫餘條 “以金銀飾帽。”
 4) 『三國史記』卷第40 雜志 第9 職官 下, “…大將軍花 三副 長九寸 廣三寸三分。上將軍花 四副 長九寸五分。下將軍花 五副 長一尺。大監花 大虎頰皮 長九寸 廣二寸五分 鈴黃金 圓一尺二寸。弟監花 熊頰皮 長八寸五分 鈴白銀 圓九寸。少監花 鷲尾 鈴白銅 圓六寸。火尺花 與少監同 鈴鐵 圓二寸。軍師幢主花 大虎尾 長一尺八寸。軍師監花 熊胸皮 長八寸五分。大匠尺幢主花 熊臂皮 長七寸(一云中虎額皮 長八寸五分) 鈴黃金 圓九寸。三千幢主花 大虎尾 長一尺八寸。三千監花 鷲尾。諸著衿幢主花 大虎尾 長一尺八寸五分。花以猛獸皮若鷲鳥羽作之 置杠上 若所謂豹尾者 今人之面槍將軍花 不言物名。其數或多或少 其義未祥。鈴行路置馱馬上 或云鐸。”

유사』에는 신라 경덕왕 때 월명사(月明師)가 죽은 누이동생을 위하여 재를 올릴 적에 ‘향가를 지어 제사지냈더니 바람에 지전이 날려 서방으로 날아갔다’⁵⁾고 하였는데, 그 찬(讚)에 “바람이 지전을 날려 죽은 누이 노자하고 / 피리소리 밝은 달을 흔들어 향아의 걸음 멈추었네 / 도솔천을 하늘 멀리 있다 하지 마시오 / 만덕화(萬德花) 꽃이 한 곡조 노래를 맞이해 주네”⁶⁾라고 하였다. 만덕화(萬德花)는 곧 불가의 산화(散花) 의식에 사용되는 가화를 가리키는 말이니, 장례에 사용하는 지전(紙錢)을 곧 만덕화라 하였던 것이다. 이로 보면 종이를 오려 만든 가화의 일종인 지전이 신라시대에 널리 사용되었던 것이다.

또한 후삼국의 궁예(弓裔)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일컫고 일컬었는데, 그가 행차할 적이면 항상 흰 말을 타고서 채색 비단으로 말갈기와 꼬리를 장식하고 동남(童男) 동녀(童女)로 하여금 번개(幡蓋)와 향화(香花)를 받들고 앞장서 인도하게 하고 비구 승려 200여인이 범패(梵唄)를 부르며 뒤따르게 하였다고 한다.⁷⁾

불교에서는 불전(佛前)에 꽃을 바치는 향화공양(香花供養)이 불가 의례의 하나로 중시되었으므로 『삼국유사』에 전하는 각종의 설화에는 꽃이 불전 공양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해인사(海印寺)에 남아 있는 옥제(玉製) 모란분(牡丹盆)은 옥 조각과 철사로 만든 가화로서 불전의 공화(供花)에 가화가 사용되었다는 증거이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 이전에 사용된 가화는 그 형태와 용도에 따라 서너 가지로 요약된다. 머리에 꽂거나 모자를 장식하는 잠화(簪花), 불전에 공양으로 바치는 공화, 특별한 의식이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지는 의장화(儀仗花)가 그것이다. 삼국시대 이래 머리카락이나 모자를 장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화는 대개 금화 은화 등의 금속제나 지화(紙花)로만 나타나고, 비단이나 모시 베로 만든 채화(綵花)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고려시대 이후로 널리 사용된 식탁 장식용의 상화(床花)나 과거급제자 또는 대신에게 하사하는 어사화(御賜花) 등도 있을 법 하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다.

5) 『三國遺事』 卷第5 感通 第7 月明師 兜率歌, “... 明又嘗爲亡妹營齋 作鄉歌祭之. 忽有輕颺吹紙錢 飛去向西而沒.”

6) 『三國遺事』 卷第5 感通 第7 月明師 兜率歌, “... 風送飛錢資逝妹 笛搖明月住姮娥 莫言兜率連天遠 萬德花迎一曲歌.”

7) 『三國史記』 卷第50 列傳 第10 弓裔, “... 善宗自稱彌勒佛 頭戴金幘 身被方袍. 以長子爲青光菩薩. 季子爲神光菩薩 出則常騎白馬 以綵飾其鬃尾 使童男童女奉幡蓋香花前導 又命比丘二百餘人 梵唄隨後.”

2. 고려시대의 가화

고려조에서는 궁중이나 국가의 경사스런 행사에 가화가 널리 사용되었다. 고려 문종 때 연등회(燃燈會)를 하면서 봉은사(奉恩寺)로 행차하여 근시 신하들을 불러 화연을 베풀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⁸⁾ 또 문종 13년 가을에는 왕이 장군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친히 화주(花酒)를 권하여 우대하였다고⁹⁾ 하였는데, 이는 술자리에 가화를 곁들인 것이다. 『고려사』 열전에 강감찬이 거란병을 격파하고 돌아오자 왕이 채봉(彩繡)을 엮어 군사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강감찬(姜邯贊)에게 금화(金花) 8가지를 손수 머리에 꽂아 주었다는 것¹⁰⁾도 이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연등회, 팔관회 등 고려시대 명절의 궁중 연회에는 국왕과 대소 관원이 머리에 꽃을 꽂는 의식 절차가 있었는데, 머리에 꽂는 꽃은 대개 가화(假花)였다. 고려 의종 20년에는 청녕재(淸寧齋)에서 밤에 잔치를 하는데 환자(宦子) 이영(李榮)이 금수금은화(錦繡金銀花)와 진향(眞香)과 서각(犀角) 등의 장신구를 모아 늘어놓고 시종한 무신들로 활을 쏘게 하여 상급을 하사하게 하며 놀이를 즐겼고,¹¹⁾ 의종 21년에는 왕이 만춘정(萬春亭)에 행차하여 채추(宰樞)와 시신(侍臣)들에게 잔치를 베풀는데 대악서(大樂署)와 관현방(管絃坊)에서 다투어 채봉(綵棚)과 준화(樽花)와 헌선도(獻仙桃), 포구악(拋毬樂) 등의 잡희를 준비하였다고 하였다.¹²⁾ 또한 의종 24년 여름에는 수성(壽星)이 다시 나타났다고 하여 태자와 대신에게 명하여 초제(醮祭)를 지내게 하고 특별히 은기소(恩祈所)를 만들어 금은화(金銀花)와 금옥(金玉)의 기명을 만들게 하였다고¹³⁾ 한다. 이처럼 친지신명에게 올리는 제사에도 금은의 가화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궁중에서 가화를 사용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고려시대에 이미 가

8) 『高麗史』卷第7 世家 第7 文宗 1 辛卯 5年, “二月… 乙未 燃燈 王如奉恩寺 翼日 命肆花宴召近侍同宴。”

9) 『高麗史』卷第8 世家 第8 文宗 2 己亥 13年, “八月… 癸酉, 宴年八十以上工部尙書洪措 上將軍何興休于閣門 王親勸花酒 歡宴盡日 仍賜衣服。又賜醮庶老及篤廢疾男女孝順義節一千二百八十人于毬庭廊下 西京及諸州郡 亦同日賜醮。”

10) 『高麗史』卷第94 列傳 第7 姜邯贊, “邯贊帥三軍凱還 獻俘獲 王親迎于迎波驛 結綵棚備樂宴將士 以金花八枝 親插邯贊頭 左執手 右執觴 慰嘆不已。”

11) 『高麗史』卷第18 世家 18 毅宗 2 丙戌 20年, “十一月 癸卯 夜宴淸寧齋, 寵宦李榮 鳩聚錦繡金銀花 眞香 犀角 馬騾 羔羊 雁等 奇玩之物 陳列左右 以迎大駕, 王命侍從將卒射 上將軍康中的 賜羅一匹 羅三匹 張女樂習飲 至四鼓 還性文房。”

12) 『高麗史』卷第18 世家 18 毅宗 2 丁亥 21年, “夏四月… 戊寅 以淸節, 幸萬春亭 宴宰樞侍臣於延興殿 大樂署管絃坊 爭備綵棚樽花獻仙桃拋毬樂等 聲伎之獻。”

13) 『高麗史』卷第19 世家 19 毅宗 3 庚寅 24年.

화를 만드는 전문적인 장인인 화장(花匠)을 두었다. 화장은 상의국(尙衣局) 소속으로 교위(校尉)의 신분을 가진 자도 있었다.¹⁴⁾ 고려조 궁중의 연회에 사용된 가화는 매우 사치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역대 제왕 가운데는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잔치에 가화의 사용을 금하기도 하였다. 고려 명종 때 연경궁에서 연등회 잔치를 벌이면서 머리에 꽃을 꽂거나 잡기를 금한 것이나,¹⁵⁾ 충렬왕 4년에 공사(公私)의 연회에 유밀과(油蜜果)와 사화(絲花)를 금하도록 하였던 것¹⁶⁾이 그런 사례이다.

가화는 궁중의 경사스런 일에 사용하는 것이었으므로 국휼(國恤) 중에는 가화를 사용하여 잔치를 베푸는 일은 금지되었다. 명종 때 금나라 사신이 왔을 적에 금나라 사신이 화연을 베풀기를 청하였지만 국휼 중이라는 이유로 채봉을 만들어 음악을 연주하고 꽃을 꽂는 행사는 거행하지 않았다.¹⁷⁾

고려시대에 시작된 과거제도에서는 제도의 실시 초기부터 과거 급제자에게 국왕이 특별히 남색 도포와 서대(犀帶)에다 머리에 꽂는 꽃과 화개(華蓋)를 하사하여 영광스럽게 하였다. 충렬왕 때 김인관은 과거 시험 3장에 잇달아 장원을 하여 금화(金花) 모자를 착용하도록 허락받기도 하였다.¹⁸⁾

고려시대 때 사용한 가화는 중국 송나라의 영향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고려 예종 인종 때 사람인 이자량(李資諒)이 송나라에 사신으로 나갔을 때 송나라 휘종(徽宗)이 그 궁궐인 예모전(睿謀殿)에서 고려 사신을 일행을 맞이하여 잔치를 벌여 준 적이 있는데, 그 때 이자량이 지은 시 가운데, “천상에서 하사하신 꽃은 머리 위에 아름답고, 소반 가운데 주신 곁은 소매 속에 향기롭다(天上賜花頭上艷, 盤中宣袖中香)”¹⁹⁾는 구절이 들어 있다. 이로 보면 송나라에서 고

14) 『高麗史』 卷第80 志第34 食貨3 祿俸 尙衣局, “米十石(繡匠 指諭一 幘頭匠 殿直同正), 八石(幘頭匠 指諭承旨一), 六石(靴匠 行首校尉一 帶匠指諭承旨 行首校尉各一), 稻十二石(頭匠 行首校尉 行首副尉各一 花匠 校尉一), 十石(幘鞋匠 校尉一), 七石(笏袋大匠一).”

15) 『高麗史』 卷第20 世家20 明宗 2 甲辰 14年, “夏四月…壬申 燃燈 王如奉恩寺 翌日大會 御延慶宮 觀樂 以國恤 權停上元 至是行之 唯禁插花諸技.”

16) 『高麗史』 卷第85 志第39 刑法2 禁令 忠宣王 二年, “傳旨 迎駕山臺 已有禁令 毋復爲之 公私宴 油蜜果 絲花 悉皆禁之 違者痛治.”

17) 『高麗史』 卷第20 世家 第20 明宗2 甲辰 14年, “五月…甲午 金祭奠使太府監完顏古畢等來 初至 西郊亭 接伴使大將軍張博仁 舞蹈 行問上禮 以國恤舞蹈 譏之曰 何失禮也 博仁 猶不悟 丁巳 王 宴金使 使不入曰 今日之事 是謂花宴 王既起復 禮宜從吉 結彩棚 奏樂插花 可也 不則不受享禮 王 使人曰 雖受起復 練祥未盡 可從吉禮乎 金使怒 不赴宴 六月戊辰 宴金使 竟不結棚插花奏樂.”

18) 『高麗史』 卷第37 世家 第37 忠穆王 丁亥 三年, “十月… 金仁瑄, 連魁三場, 賜馬紅 許着金花帽, 王親授紅牌, 寵渥尤厚 是月 命新及第四日成行 尋令六日成行 國制, 凡登科者 特賜藍袍犀帶 戴花張蓋 以榮之.”

려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머리에 꽂는 가화를 내려 주는 관례가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고려시대의 기록에는 머리에 꽂는 금은제의 각종 가화 외에 음식상을 장식하는 상화(床花), 의전과 연회 장소를 장식하는 준화(樽花), 그리고 헌선도(獻仙桃), 포구악(抛毬樂) 등의 잡희(雜戲)에 사용되는 의장화(儀仗花), 국왕이 과거 급제자나 공훈을 세운 신하에게 하사하는 사화(賜花) 등의 용도로 여러 가지 형태의 가화가 사용되었고, 이들 가화를 제작하기 위한 전문 장인인 화장(花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고려에는 삼국시대 이래 꾸준히 전해져온 가화 사용의 고유한 관습과 우수한 제작기술이 있었을 것이므로,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3. 조선시대의 가화제작과 사용

조선시대에도 궁중의 진연(進宴)이나 기로연(耆老宴), 경로연(敬老宴), 과거의 방방(放榜) 이후 유가(遊街) 등의 의식에는 꽃을 꽂아 장식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었다. 성대한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꽃을 꽂아 경사스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에는 가화로 장식한 화준(花樽)을 놓고, 또 음식상에도 상화를 꽂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가화의 수요가 많았으므로 궁중의 각사(各司)에 가화를 만드는 전문 기술자인 화장이 배치되어 있었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의하면 봉상시(奉常寺)에 화장 6명을 두었고, 선공감(繕工監)에 식탁을 장식하던 상화농장(床花籠匠) 4명을 둔다고 하였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도 “내자시(內資寺)에서는 어상의 찬품, 꽃(花子; 假花)를 주장하며, 내섬시(內贍寺)에서는 제신(諸臣) 상의 찬품을 주장하고, 예빈시(禮賓寺)에서는 제신 상의 음식가지 수와 꽃을 주장한다.”²⁰⁾고 하였다. 연산군 11년에는 장악원(掌樂院) 제조(提調) 이계동(李季叟)과 임송재(任崇載)가 “연당(蓮塘)의 제구(諸具)가 파손되어도 본원에 화장이 없으므로 곧 수보(修補)하지 못하고, 또 기생들의 수화(首花)는 물건 값을 주어도 자유로이 살 수 없으니, 화장 3인을 본원에 붙여 부리게 하자”²¹⁾는 건의에 따라 장악원에도 화장 3인을 둔 적이 있다. 중종 35년에

19) 『高麗史』卷第95 列傳 第8 李子淵, “...李資諒... 奉使如宋 徽宗御睿謀殿 召一行人賜宴 作詩示之 命和之 資諒即製進云 鹿鳴嘉會宴賢良 仙樂洋洋出洞房, 天上賜花頭上艷 盤中宣袖袖中香, 黃河再報千年瑞 綠醕輕浮萬壽觴, 今日陪臣參盛際 願歌天保永無忘 徽宗大加稱賞。”

20) 『國譯萬機要覽』 I -407.

는 실록청(實錄廳)의 당상(堂上)과 낭관(郎官) 및 하인에게 상을 내릴 적에 화장에게 면포 2필 등을 주어 포상한 일²²⁾이 있는데, 실록청에도 어떤 필요에 의하여 화장이 파견되었던 것이다.

이들 화장들은 궁중과 국가의 중요 행사에 사용되는 가화를 제작하였는데, 매해마다 그 수요가 만만치 않았다. 고종 임인년의 『진연의궤(進宴儀軌)』에 수록된 가화를 살펴보면 외진연(外進宴)에 사권화(絲圈花) 2개, 수공일지당가화(首拱一枝唐假花), 준화(樽花) 1쌍, 수공홍도이지화(首拱紅桃二枝花) 3,900 개를 비롯하여 모두 23,554개의 가화가 사용되었고, 내진연(內進宴)에도 사권화(絲圈花) 2개와 준화(樽花) 1쌍을 비롯하여 모두 26,054개의 꽃이 사용되었다. 그 밖에도 포구락(抛毬樂)에 삼지화(三枝花)가 60개, 보상반(寶相盤)에 석죽화(石竹花)가 20개, 무동(舞童) 25인의 복식에 사용되는 금화관(金花冠)이 25개에다 당가화(唐假花)가 200송이 사용되었으며, 춘앵전(春鶯囀)의 연회에 수공화(首拱花)가 4개,佳人剪牡丹(佳人剪牡丹)에 화준(花樽)과 목단화(牡丹花) 200개가 사용되고, 육화대(六花隊)의 놀이에 각색 수화(繡花)가 6송이와 준화 2쌍이 모두 가화로 제작되었다.²³⁾

이처럼 궁중의 의식에 사용하는 잠화와 상화, 준화 등 수많은 꽃을 준비하는데는 막대한 경비가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시대마다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화제작의 재료를 비단에서 종이로 바꾸거나 의식용 꽃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사스런 잔치에 있어서 꽃을 사용하는 관습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다. 조선 태종 14년 12월 사치하는 것을 금하면서 “궁내에서 신료에게 연회하는 과상(果床)에는 지화(紙花)를 사용하라”²⁴⁾고 조치한 일이 있고, 세조 때도 호조에 “무릇 연향(宴享)할 때에 진상하는 잠화 외에는 모두 지화를 사용하게 하라.”²⁵⁾는 전지를 내렸다. 이런 지침은 시대마다 건의되었으나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조선조 궁중 의례에서 가화가 많이 필요로 하였던 것은 꽃을 꺾고 훑는 의식이 의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이었다. 숙종 32년 8월 27일 임자년 인정전진연(仁政殿進宴)의 의식 절차 전반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이 좌에 오르면, 위관(衛官)들이 입시(入侍)하고, 왕세자가 들어와 배위

21) 『燕山君日記』 57卷 燕山 11年 1月 3日 己丑

22) 『中宗實錄』 93卷 中宗 35年 4月 15日 丙戌

23) 『高宗壬寅進宴儀軌』 卷2 饌品.

24) 『太宗實錄』 28卷 太宗 14年 12月 1日 庚午.

25) 『世祖實錄』 28卷 世祖 7年 4月 1日 辛未.

에 나가고, 2품 이상인 종친·문관·무관이 들어와 배위에 서서 전의(典儀)의 구령에 따라 사배를 한다. 다음으로 왕세자 이하가 모두 꿇어 앉고, 제조가 휘건함(揮巾函)을 받들어 어좌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바치고, 다시 제조가 찬안(饌案)을 바치고, 별행과(別行果)를 바친다. 그런 다음 예방승지(禮房承旨)가 화반(花盤)을 받들고 어좌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면, 내시가 꽃을 받아 익선관 오른쪽에 꽂는다. 다시 제조가 염수(鹽水)를 바치고, 공안(空案)을 찬안(饌案) 오른쪽에 놓는다. 그런 다음 왕세자 이하가 꿇어앉고 제조가 소찬(小饌)을 바치면서 천년만세곡(千年萬歲曲)을 연주한다. 그런 다음 왕세자가 첫 잔(爵)을 바치고 대치사관(代致詞官)이 어좌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왕세자 모(某)는 삼가 천천세(千千歲)의 수(壽)를 올립니다.’하며 치사를 한 다음, 임금이 잔을 들었다가 다시 놓으면, 왕세자 이하가 꿇어앉고 제조가 고기를 빼어 꿇어앉아 찬안 오른쪽에 바치고, 다시 만두(饅頭)를 바친다. 그런 다음 반수(班首)인 영의정이 둘째 잔을 바치고 나면, 승지가 어좌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전명(傳命)을 아뢰고 나와서는 선교(宣敎)하여, ‘경(卿)들의 잔(觴)을 공경히 들라.’ 하고는, 임금이 잔을 들었다가 접에 잔을 도로 놓는다. 그러면 왕세자 이하가 삼고두(三叩頭)하고 공수(拱手)하여 세 번 산호(山呼)하며, ‘천세, 천세, 천천세!’를 외치고, 악공(樂工)·군교(軍校)가 큰소리로 호응한다. 그런 다음 왕세자 이하가 사배한 뒤에 어좌 동편으로 올라가 서향하여 앉고, 승지·사관이 물러가 전계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앉고, 종친·문관·무관이 각각 동서의 반차(班次)에 나아간다. 그러면 사옹 부제조(司饗副提調)가 왕세자에게 찬탁(饌卓)을 바치고, 보덕(輔德)이 꽃을 바치고 집사자(執事者)가 종친·문관·무관이 찬탁에 나아가 꽃을 뿌린다. 그러면 임금이 전교(傳敎)하여, ‘시위(侍衛)하는 제장(諸將)에게 꽃을 내리라.’하고, 또 전교하기를, ‘시위하는 제장은 자리에 나아가라.’한다. 그런 다음 왕실과 종친, 대신들이 잇달아 잔을 올린다. 절차가 끝나면 소선(小膳)을 물리고 대선(大膳)을 바치며 여민락을 연주하고 처용무(處容舞)를 올린다. 잔치를 마치면 철안(徹案)하고서 왕세자 이하가 내려가 배위에 나아가서 사배를 행한다. 좌통례(左通禮)가 꿇어앉아 예(禮)가 끝났음을 고하면, 임금이 대내(大內)로 돌아간다.²⁶⁾

이와 같이 궁중의 연회에는 참여하는 사람에게 모두 잠화를 나누어 주어 머리에 꽂게 하고, 상화로 장식한 찬상을 내어 와서 참여자들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거쳐 다음으로 각종의 연회를 베풀었다. 이런 행사의 규모는 크게는 수천 명, 작게는 수 백 명에 이르렀다. 연산군 때 자순왕대비전(慈順王大妃殿)에 진연을 벌일 적에 잔치 상 한 상에 든 비용의 밀가루(麥末)가 40여 석(碩)이고, 다른 물건도 그에 버금하였으며 채화(綵花)를 꽂고 금은으로 꾸며서 정교하고 화려함을 다하였는데, 7왕후의 죽친에게 공궤할 때만 남객(男客)이 1천여 인, 여객(女

26) 『肅宗實錄』 44卷 肅宗 32年 8月 27日 壬子.

客)이 2백 80여 인이었다²⁷⁾고 한다.

궁중에서의 연회뿐만 아니라 국왕이 신하들에게 베푸는 사연(賜宴)에도 가화가 사용되었다. 『죽창한화(竹窓閑話)』에는 광해군 을묘년(1615) 기로연을 할 적에 “휘장과 장막, 병풍 죽자 같은 기구나 등촉(燈燭)과 채화(綵花) 따위의 화려한 것이나, 기악(伎樂)의 푸짐한 것이나, 음식의 풍부한 것이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하여 자못 이 인간 세상의 일 같지가 않았다. 모든 노인들은 모두 여러 조정의 기로(耆老)들로서, 쇠한 얼굴에 센 머리털을 날리고 서대(犀帶)와 금대(金帶)가 휘황하게 빛나고 머리에 꽃은 꽃은 모자를 눌렀는데, 술이 얼큰 하자 서로 일어나 너울너울 춤을 추니 음악 소리가 하늘에 울렸다”고 하였다.²⁸⁾ 다음은 숙종 45년 경현당(景賢堂)의 기로연(耆老宴)의 의식 절차이다. 의식의 시작은 언제나 꽃을 올리고 나누어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왕이 경현당(景賢堂)에 행차하면 근시(近侍)와 시위(侍衛)하는 장사(將士)들이 각각 자리에 나아가고, 왕세자가 여러 기로신들을 거느리고 모두 네 번 절하고 자리에 나아갔다. 다음으로 사용원 제조(司饗院提調)가 주기(酒器)를 바치고 왕세자 이하의 관원들이 자리를 나란히 하여 부복(俯伏)한다. 제조가 휘건함(揮巾函)을 받들어 바치고 다음으로 제조가 찬안(饌案)을 바치고, 또 별행과(別行果)를 바친다. 그런 다음 집사자(執事者)가 기로신들의 찬탁(饌卓)을 배설(排設)한다. 임금이 시위(侍衛)하는 여러 장수에게 자리를 내려주도록 명하면, 근시(近侍)가 화반(花盤)을 받들어 어좌(御座) 앞으로 나간다. 그러면 왕세자 이하의 관원들은 부복(俯伏)하고 내시가 꽃을 바친다. 제조가 염수(鹽水)를 바치고 공안(空案)을 찬안(饌案)의 오른쪽에 놓으면, 왕세자 이하의 관원들이 도로 자리에 돌아간다. 제조가 공안을 왕세자의 오른쪽에 놓고, 보덕(輔德)이 왕세자에게 꽃을 올리고, 집사자(執事者)가 여러 기로신들에게 꽃을 나누어 준다. 그런 다음 내시가 교지(教旨)를 선포하기를, ‘전내(殿內)의 시위(侍衛)에게 모두 자리를 내려 주도록 하라.’한다. 그런 다음 제조가 소선(小膳)을 바치면 왕세자 이하의 관원들은 부복한다. 그런 다음 부제조(副提調)가 왕세자에게 선(膳)을 올리고 집사자가 여러 기로신들에게 선(膳)을 베푼다.²⁹⁾

이처럼 궁중의 연회가 꽃을 꽃고 꽃을 나누어 주며, 가화로 장식된 찬상을 내어 놓고, 가화로 장식된 연회를 즐기는 순서로 진행되는 만큼 가화가 없으면 연회의 화사하고 경사스런 분위기를 나타낼 수 없을 정도였다.

27) 『燕山君日記』 58卷 燕山 11年 5月 5日 己丑

28) 『大東野乘』 卷71 죽창한화 17-262.

29) 『肅宗實錄』 63卷 肅宗 45年 4月 18日 庚申.

궁중의 경사스런 연회 뿐만 아니라 제사나 국상(國喪)의 찬물(饌物) 진열에도 상화가 사용되었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명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광록시경(光祿寺卿) 권영균(權永均)의 집에 가서 사제(賜祭)를 내리게 하였을 때 그 집에서 화장에게 마포 1필을 주어 사례했다는 기록이 있다.³⁰⁾ 명나라 황제의 사제에 화장을 동원한 것은 가화를 만들어 제사상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예종실록(睿宗實錄)』에는 예종 원년 명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세조의 국상에 시호(諡號)와 치부(致賻)를 전하는 의식을 거행할 적에 제물을 마련한 기록이 있는데, 그 때 “제물 숙설 화장(祭物熟設花匠) 1명이 본국(本國)의 화장 13명을 거느리고 제물을 만들었다”고 하였으며, 이 때 참석한 화장은 “봉상시와 내자시와 내섬시와 예빈시의 화장”³¹⁾이라 하였다. 이로 보면 제수(祭需)의 진설(陳設)에 가화를 사용하였고, 여기에 사용되는 가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궁중의 각 소관 부처마다 화장이 배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풍속은 민간에도 전파되었다. 머리에 꽃을 꽂는 잠화만 하더라도 궁중 귀족이나 사대부는 물론 민간의 천민들도 사용하였다. 『세조실록』에는 유생 몇 사람이 길에서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임원준(任元濬)의 계집종을 만나 잠화를 빼앗으려고 한 일³²⁾ 때문에 유생들을 잡아 벌을 준 일이 있었다. 정조 20년 대사간 김한동(金翰東)의 상소에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채화를 금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여역의 부자들이 경사스러운 모임으로 손님을 청할 때면 채화(綵花)와 금승(金勝)이 좌우에서 번쩍거리고 쌓아 놓은 유밀과의 높이가 한 길이 넘는 등 낭비가 날로 심해지고 저마다 사치를 숭상하고 있습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광묘(光廟) 원년에는 외국 사신들을 위한 연회 때에만 유밀과를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우리 선조(先朝)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혼례나 사대부의 혼례를 막론하고 모두 유밀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으며, 금색 은색의 노포화(露布花)를 사용하는 자는 형장 80대로 처벌하였습니다.³³⁾

궁중이나 민간의 잔치에 머리에 잠화를 꽂고, 찬상(饌床)을 가화로 장식하는 것은 매우 호사스러운 일이었고, 한편으로 많은 비용이 들었으므로 국가에서 이를 금하고자 하였지만, 궁중은 물론 민간에서도 쉽사리 이런 풍속이 사라지지

30) 『世宗實錄』 28卷 世宗 7年 5月 26日 乙未

31) 『睿宗實錄』 4卷 睿宗 1年 2月 16日 辛未

32) 『世祖實錄』 23卷 世祖 7年 3月 6日 丁未

33) 『正祖實錄』 45卷 正祖 20年 11月 19日 庚申

않았다. 잔치나 제향에 꽃을 사용하는 데는 한편으로 잔치와 제향을 성대하게 꾸미려는 정성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를 쉽사리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조 41년 영조가 세손을 위하여 경현당에서 진연(進宴)을 행할 적에 있었던 일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임금이 처음에 잠화(簪花)를 제거하라고 명하였는데, 세손에게 하교하기를, “네 할아버지는 잠화를 꽃지 않았는데 너만 유독 잠화를 꽃았으니, 네 마음에 편안한가?”하니, 세손이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소손을 위하여 성상께서도 잠화를 꽃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매,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네가 잠화를 꽃고 싶어서 도리어 할아버지에 잠화를 꽃도록 청하니, 이는 곧 옛날 노래자(老萊子)가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뜻이라, 정성과 효성이 이와 같으니, 내가 마땅히 힘써 허락하겠다.”하고, 이어서 잠화 꽃기를 허락하라고 명하였다.³⁴⁾

경사와 축복을 올리는 의미로서 가화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신들에게 경사스런 일이 있을 적에 국왕이 가화를 하사하는 것은 하나의 영광스런 전례가 되었다. 숙종 42년 약방 제조 민진후(閔鎭厚)가 “올해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광적(李光迪)이 급제한 지 회갑이 되는 해입니다. 일찍이 듣건대. 전배(前輩)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특별히 명하여 사화(賜花)하였다 합니다. 이것은 유전(流傳)하는 말이므로 잘 알 수는 없으나, 이제 특별히 늙은이를 우대하는 은전을 내린다면 합당할 듯 합니다.”³⁵⁾라는 건의에 따라 사화를 하였다.

조선조에도 과거급제자에게 어사화(御賜花)를 내리는 관습이 지속되었다. 어사화는 개인이나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지였다. 그러므로 어사화를 받은 급제자는 이를 모자에 꽃고 풍악을 울리며 거리를 다니는 유가(遊街)의 행락을 즐길 수 있는 특권의 담보물이기도 했다. 명종 8년 임금이 춘당대에서 무사(武士) 중 문의(文義)를 해득하는 자를 뽑아서는 이공좌(李公佐) 등 5명에게 공복(公服)을 입히고 잠화(簪花)를 꽃게 하고, 우인(優人)을 시켜서 앞에서 놀이를 하게 한 일³⁶⁾은 그런 사례의 하나이다.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에게 화개(華蓋)와 사화를 내려 유가를 허락하는 것은 하나의 관례였지만, 국상이 있으면 방방(放榜)한 뒤에 사개(賜蓋)와 사화는 물론 유가도 허락하지 않았다.³⁷⁾

34) 『英祖實錄』 106卷 英祖 41年 10月 4日 丙午.

35) 『肅宗實錄』 58卷 肅宗 42年 9月 4日 庚午.

36) 『明宗實錄』 15卷 明宗 8年 9月 13日 丙辰.

37) 『成宗實錄』 289卷, 成宗 25年 4月 21日 己卯.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각종 연회에 머리와 모자를 장식하는 잠화와 식탁을 장식하는 상화, 식전을 장식하는 준화, 각종 연회에 사용되는 의장화, 과거급제자를 비롯한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사화 등이 매우 널리 사용되었고, 이 외에도 불전이나 신당, 또는 선비의 서재를 장식하는 공화(供花)나 상장례(喪葬禮)에도 각종의 가화가 사용된 것은 특별히 예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궁중의 각종 연회에는 다량의 가화가 제작 사용되었으므로 그 제작을 위한 전문 장인인 화장이 필요한 관서마다 배치되어 있었고, 이들에 의하여 가화제작의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어, 금사나 은사는 물론 채화와 지화, 밀화(蜜花)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특징 있는 가화 문화를 창작해내었다.

Ⅲ. 한국 가화의 종류

조선조까지 한국에서 제작 사용되어온 가화에는 형태나 재료, 용도에 따라 각기 다양한 이름이 있었다. 만드는 재료에 따라 채화(綵花), 저화(苧花), 사권화(絲圈花), 사화(絲花), 지화(紙花), 납화(蠟花), 금화(金花), 은화(銀花) 등의 이름이 있고,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잠화(簪花), 수화(首花), 수공화(首拱花), 모화(帽花), 상화(床花), 준화(樽花) 등의 이름이 있고, 의장용으로 지당판(池塘板), 연화대(蓮花臺), 헌천화(獻天花) 등의 명칭이 있으며, 제공되는 행위에 따라 산화(散花), 사화(賜花) 등의 이름이 있었다.

순조(純祖) 때의 『기축진찬의궤(己丑進饌儀軌)』에는 궁중에서 각종 연회에 사용한 다양한 가화의 형태에 따라 열거해 놓았는데, 그 <채화도(綵花圖)>에는 어잠사권화(御簪絲圈花), 사권화(絲圈花), 소사권화(小絲圈花), 준화(樽花), 삼층대수파련(三層大水波蓮), 이층중수파련(二層中水波蓮), 일층소수파련(一層小水波蓮), 홍도삼지화(紅桃三枝花), 삼색홍도화(三色紅桃花), 홍도이지화(紅桃二枝花), 홍도별건화(紅桃別建花), 홍도간화(紅桃間花), 홍도건화(紅桃建花), 월계화(月桂花), 모란화(牡丹花) 등 15종의 채화가 있고, <정재의장도(呈才儀仗圖)>에 지당판(池塘板), 연화(蓮花), 화병(花瓶), 모란지화(牡丹紙花), 대연화통(大蓮花筒)이 있고, 또 여령(女伶)의 관식(冠飾)으로 화관(花冠)이 있으며 별도로 별가화(別假花)가 나열되어 있다.

고종조의 『임인진연의궤(壬寅進宴儀軌)』의 <채화도>에는 어잠사권화,

사권화, 준화, 삼층대수파련, 이층중수파련, 일층소수파련, 모란화, 월계화, 홍도별간화, 사계화(四季花), 홍도삼지화, 홍도이지화, 홍도별건화, 홍도건화, 복분자화(覆盆子花), 과자화(瓜子花), 홍도간화, 국화(菊花), 유자화(柚子花), 시자화(柿子花), 가자화(茄子花), 포도화(葡萄花) 등 22종의 가화가 도식으로 전하고, 또 <정재의장도(呈才儀仗圖)>에 지당관, 연화와 연엽(蓮葉), 화병, 모란화, 대연화통이 있고, <악기도(樂器圖)>에 헌천화병(獻天花瓶), 선도반(仙桃盤), 모란화준(牧丹花樽) 등과 같이 가화 또는 가화로 장식된 의장이 나타난다.

궁중의 연회에서 사용된 이들 가화의 형태상의 특징과 용도는 고종 때의 『임인진연의궤(壬寅進宴儀軌)』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사권화(絲圈花) 4개는 길이 1자 2치로 만드는데 은으로 굵을 만들고 각색의 용사(絨絲)로 꽃과 잎을 만들며, 은과 구리로 테두리를 만든다. 진작(進爵) 채신(宰臣) 이하 내외빈 이하의 수공화(首拱花)는 홍도이지화(紅桃二枝花)에다가 내하(內下)의 당가화(唐假花) 하나를 첨가하여 사용하고, 순검(巡檢)의 무예별감(武藝別監)과 병정(兵丁) 이하까지의 수공화(首拱花)는 홍도이지화(紅桃二枝花)를 사용하며, 정재(呈才)의 여령(女伶)의 수공화(首拱花)는 수파련(水波蓮)을 사용하되 내하(內下)의 당가화(唐假花) 하나를 첨가한다. 준화(樽花)는 길이 9자 5치인데 홍벽도화(紅碧桃花)로 나누어 장식하여 두 개의 화준에 꽂는다. 상화(床花)에 사용하는 대수파련(大水波蓮)은 밀랍을 사용하여 연화엽(蓮花葉)을 만들고, 사이사이 월계(月桂)와 홍도(紅桃) 벽도(碧桃) 및 내하(內下)의 당가화(唐假花) 등을 넣고, 선동(仙童) 10인이 금은배(金銀杯)를 받들고 있으며, 위에는 남극노인(南極老人)이 ‘강구연월(康衢煙月) 수복다남(壽福多男)’ 여덟 글자를 들고 있는데, 찬안(饌案) 가운데 꽂아 놓는다. 또 중소수파련(中小水波蓮)을 좌우에 꽂고 홍도화(紅桃花), 절화(節花), 별건화(別建花), 간화(間花), 모란화(牧丹花) 등을 나누어 꽂는다. 대소의 찬기(饌器)와 외선상(外宣床) 이하, 사찬상(賜饌床) 이하에 사용하는 가화로서 화엽(花葉)이 조금 작은 것이 간화(間花)이고 조금 많은 것이 건화(建花)이다.³⁸⁾

³⁸⁾ 『高宗壬寅進宴儀軌』, “絲圈花 四本 長一尺二寸 以銀爲跗 各色絨絲造花葉 銀鋼絲爲匡 進爵宰臣以下內外賓以下首拱花 用紅桃二枝添入內下唐假花一枝 巡檢武藝別監兵丁以下首拱花 用紅桃二枝花 呈才女伶首拱花 用水波蓮 添入內下唐假花一枝 樽花長九尺五寸 分擘紅碧桃花 挿於二樽 床花大水波蓮 用蠟爲蓮花葉 間以月桂紅桃碧桃 及內下唐假花之屬 仙童十人 奉金銀杯 上有南極老人 懸康衢煙月 壽福多男八金字 挿之饌案 居中 又以中小水波蓮 挿之左右 以紅桃花節花 別建花 間花 牧丹花 分挿 大小饌器 及外宣床以下 賜饌床以下 花葉稍小者 爲間花 稍繁者爲建花。”

여러 가지 가화의 명칭 가운데 채화, 저화, 사권화, 사화 등에는 금사나 은사, 동사 등의 금속을 곁들였다. 그러나 이들 가화는 베나 실을 주재료로 하여 만들어 지기 때문에 채화라고 통칭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궁중에서 사용된 가화는 재료가 달라지더라도 그 형태에는 변함이 없었다. 영조 4년에 “진연(進宴)의 사화봉(絲花鳳)을 없애고 지화로 같음하라”³⁹⁾고 명한 일이 있고, 또 영조 22년에는 “대소 연례에도 단지 지화만 허락하고 납화(蠟花)는 쓰지 말도록 하라.”⁴⁰⁾고 한 일이 있는데, 사화(絲花)나 지화(紙花)나 납화(蠟花)나 모두 재료가 달라서 그렇지 본디 형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용도에 따라 붙여지는 잠화(簪花), 수화(首花), 수궁화(首拱花), 모화(帽花) 등도 실은 머리에 장식하는 것이기 잠화로 통칭하여도 무방하다. 제공되는 행위에 따라 붙여지는 산화(散花), 사화(賜花) 등은 이미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가화를 사용하는 행위일 따름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별하여 논의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가화의 용도에 따라 머리카락이나 모자를 장식하는 잠화, 찬탁이나 상을 장식하는, 큰 동이에 넣어 의식 공간을 장식하는 준화, 연회용의 의장화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잠화(簪花)

잠화는 머리에 착용하는 관이나 모자 등에 꽂아 장식하는 가화이다. 삼국시대 백제의 왕이나 대신이 관식으로 사용했다는 금화(金花)나 은화(銀花), 그리고 고려시대 궁중에서 사용했던 수식의 가화는 지금 자세히 알 수 없다.

조선조에는 대개 궁중의 연회에 국가의 경사스런 행사에 잠화를 하사하고 착용하였다. 그런데 연산군 12년에는 “나인의 머리에 장식할 꽃을 오부(五部)와 의금부 관원들이 공사(公私)의 화장(花匠)을 모아 오늘 오전 중에 다 만들도록 하라”⁴¹⁾는 전교가 있었다. 이로 보면 궁중의 연회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궁중 나인들의 머리 장식으로 잠화를 사용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한 몇 가지 잠화에 대하여는 각종 의궤에 그 그림과 설명이 대략 있으므로 형태와 제작 방법을 대략 알 수 있다. 고종 임인년의 의궤에 사용한 잠화로는 사권화(絲圈花)와 일지당가화(一枝唐假花), 홍도이지화(紅桃二枝花) 등이 있었다. 그런데 순조 27년(1827)의 『자경전진작의궤(慈慶

39) 『英祖實錄』 19卷 英祖 4年 8月 18日 丙申.

40) 『英祖實錄』 63卷 英祖 22年 4月 21日 丙戌.

41) 『燕山君日記』 62卷 燕山 12年 6月 12日 庚申.

殿進爵儀軌』에는 단가 10냥의 사권화 외에 제조단가 1전의 이지수공화(二枝首拱花), 단가 2전7푼의 삼지수공화(三枝首拱花), 단가 1냥의 삼색홍도수공화(三色紅桃首拱花) 등의 이름이 나오며,⁴²⁾ 『순조기축진찬의궤』에는 사권화 이외에 삼지수공화만 나타난다. 이로 보면 시대에 따라 잠화로 사용하는 수공화는 사권화 이외에는 형태가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권화는 국왕이 관식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가화이다. 고종 임인년의 진연에는 외진연(外進宴)에 사권화 두 가지를 사용하고, 내진연(內進宴)에 사권화를 3가지, 별도의 잠화를 2가지 만들어 사용하였다.⁴³⁾

고종 『임인년진연의궤』의 <채화도>에는 어잠사권화(御簪絲圈花)와 사권화 두 가지의 도식이 실려 있다. 어잠사권화는 곧게 뻗은 화주(花株) 가운데 규화(葵花) 모양의 큰 꽃송이를 하나 만들어 붙인 뒤 큰 벌 두 마리를 만들어 달았고, 아래로는 연밥 모양의 받침에서 좌우로 작은 가지 두 가지를 만들어 작은 꽃을 달았으며, 위로는 두 층으로 잎을 만들어 좌우로 붙이고 맨 위에 나비를 만들어 달았는데, 잎의 모양이 모두 부채꼴로 처리되어 있다. 사권화는 곧게 뻗은 화주 가운데 규화 모양의 꽃을 하나 만들어 붙이고, 아래로는 받침 없이 좌우로 작은 가지 두 가지를 만들어 같은 크기의 꽃을 달았고 위로는 두 층으로 잎을 만들어 붙였는데 한 층에는 세 잎, 맨 위에는 잎이 하나 달려 있으며, 꽃에는 작은 벌이 두 마리씩 달려 있는데, 사권화의 잎은 모두 엽맥(葉脈)과 거치(鋸齒)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만들었다.

어잠사권화와 사권화는 꽃의 모양과 잎의 모양에서 확연히 구별된다. 어잠사권화는 국왕이 사용하였고, 사권화는 국왕 이외의 왕후나 왕세자 등의 재상 위의 신분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사람이 사용하였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 대전(大殿)의 탄일(誕日)이나 절일(節日)에 올리는 물건 가운데 “애화(艾花) 40송이(매 송이 값은 5푼 2리), 수화(首花) 1송이(값은 3냥 9전 9푼)”를 올린다고 하였고, 또 중궁전과 왕대비전, 혜경궁, 가순궁(嘉順宮)의 탄일과 절일에도 각각 “수화 1송이(값은 3냥 9전 9푼)”를 올린다고⁴⁴⁾ 하였다. 여기서 탄일과 절일에 올리는 대전과 중궁전 및 각 궁에 올리는 수화(首花)는 그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사권화를 말한 것일 터이다.

고종 때의 사권화는 “길이 1자 2치인데 은으로 굵을 만들고 각색의 용사(絨絲)로 꽃과 잎을 만들며, 은과 구리로 테두리를 만든다.”고 하였지만, 세조 때

42) 『慈慶殿進爵儀軌』 卷2 綵花

43) 『高宗壬寅進宴儀軌』 卷1 入對筵說

44) 『國譯萬機要覽』 I-43.

예조에 내린 전지(傳旨)에 “사신의 연향(宴享)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 진상하는 채화주(綵花株)에는 황동을 쓰도록 하라”⁴⁵⁾는 내용이 있다. 세조조에 사치를 금하기 위하여 채화의 기둥을 황동으로 바꾸었으니, 그 이전에는 황동보다 훨씬 호사스럽고 값비싼 재질로 만들었던 것이다. 황동보다 값비싸고 호화스런 것이라면 아마도 금이나 은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인조 때 사헌부의 건의에 가운데 ‘여러 궁가(宮家)에서 진향할 때 채화를 오려 만들어서 금사로 엮어 단다.’⁴⁶⁾고 한 말이 있다. 왕실 사람들이 사가(私家)에서 상화에 금사를 사용했다면 궁중에서 국왕의 잠화를 만드는 데는 더 이상의 호사를 했을 것이다.

재신 이하 내외빈의 수공화(首拱花) 즉 잠화로 사용하는 홍도이지화(紅桃二枝花)는 채화 도식에 의하면, 본 가지에 곁가지를 하나 붙인 화주(花株)에 두 개의 붉은 색 도화(桃花)를 만들어 붙이고 꽃에다 나비 한 마리씩을 붙였으며, 가지 아래위로 잎을 만들어 붙였다. 고종 임인년의 의례에 의하면 머리에 꽂는 홍도이지화가 외진연에 3,900개, 내진연에 4,000개가 소용되었으며 1개의 제작 단가가 1전 7분이었다. 이로 미루어보건대 이 홍도이지화는 저화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급제자에게 내리는 사화는 고려조에서 시작하여 조선조에도 사용하였다. 『만기요람』에는 “문과 무과 방방(放榜)할 때의 사화는 문과에는 내자시, 무과에는 예빈시”에서 담당하는 것⁴⁷⁾으로 되어 있었다. 과거급제자에게 내리는 사화는 『용재총화』에 의하면 참대오리 2개를 종이로 감고 비틀어 꼬아서 군데군데에 다홍색 보라색 노란색의 꽃종이를 꿰었다고 한다. 지금 남아 있는 유물을 살펴보면 “2개의 대오리 밑 부분을 2조로 하여 맨 아래에는 꽃받침으로 간주되는 커다란 종이를 꿰고, 위에는 청황홍색의 종이꽃을 여러 개 붙였다. 급제한 사람은 이러한 어사화의 한쪽 끝을 복두 뒤에 꿰고, 다른 한끝은 명주실로 잡아매어 머리위로 휘어 넘겨서 입에 물고 3일 유가를 하였다고 한다.”⁴⁸⁾

2. 상화(床花)

성대한 연회를 베풀 적에 상차림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상화는 고려조에 이미 사용된 흔적이 있다. 문종 때 연등회를 하면서 봉은사로 행차하여 근시 신하들을 불러 화연(花宴)을 베풀게 하였다는 기록이나,⁴⁹⁾ 또 문종 13년 가을에는 왕이

45) 『世祖實錄』 1卷 世祖 1年 7月 19日 壬辰.

46) 『仁祖實錄』 32卷 仁祖 14年 3月 14日 乙未.

47) 『國譯萬機要覽』 I-389.

48) 유희정, 1980,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대출판부.

장군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친히 화주(花酒)를 권하여 우대하였다고⁵⁰⁾ 한 것, 또 고려 의종 20년 청녕제의 밤 잔치에서 금수금은화(錦繡金銀花)를 사용한 일⁵¹⁾ 등이 그것이다.

조선조에 와서도 상화는 널리 사용되었다. 조선 태종 14년 12월 사치하는 것을 금하면서 “궁내에서 신료에게 연회하는 과상(果床)에는 지화를 사용하라”⁵²⁾고 조치한 일이 있고, 세조 때도 호조에 “무릇 연향할 때에 진상하는 잠화 외에는 모두 지화를 사용하게 하라.”⁵³⁾는 전지를 내린 일이 있다.

조선조 궁중 진연의 상화에는 수파련(水波蓮), 홍도화(紅桃花), 모란화(牡丹花), 월계화(月桂花), 사계화(四桂花)와 각종의 건화(建花), 별건화(別建花), 간화(間花), 그리고 복분자화(福盆子花), 과자화(瓜子花), 국화(菊花), 시자화(柿子花), 유자화(柚子花), 가자화(茄子花), 포도화(葡萄花) 등의 각색 절화(節花)가 사용되었다. 잠화로 사용하는 사권화가 고귀함과 영화를 상징한다면, 수파련은 장수와 다복을 기원하고, 각색 절화는 풍요와 다산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채화도>의 설명에는 “상화에 사용하는 대수파련(大水波蓮)은 밀랍을 사용하여 연화엽(蓮花葉)을 만들고 사이에다 월계(月桂)와 홍도(紅桃) 벽도(碧桃) 및 당가화(唐假花) 등을 넣고, 선동(仙童) 10인이 금은배(金銀杯)를 받들고 있으며, 위에는 남극노인(南極老人)이 ‘강구연월 수복다남(康衢煙月壽福多男)’ 여덟 글자를 들고 있는데, 찬안(饌案) 가운데 꽂아 놓는다. 또 중소수파련(中小水波蓮)을 좌우에 꽂고 홍도화, 절화, 별건화, 간화, 목단화 등을 나누어 꽂는다. 대소의 찬기(饌器)와 외선상(外宣床) 이하, 사찬상(賜饌床) 이하에 사용하는 가화로서 화엽(花葉)이 조금 작은 것이 간화이고 조금 많은 것이 건화”라고 하였다. 『임인진연의궤』에는 이러한 상화의 제작 수량과 제작단가가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49) 『高麗史』 卷第7 世家 第7 文宗 1 辛卯 5年, “二月… 乙未 燃燈 王如奉恩寺 翼日 命肆花宴 召近侍同宴。”

50) 『高麗史』 卷第8 世家 第8 文宗 2 己亥 13年, “八月… 癸酉 宴年八十以上工部尙書洪措 上將軍 何興休于閣門 王親勸花酒 歡宴盡日 仍賜衣服 又賜醴庶老及篤廢疾男女孝順義節一千二百八十人于毬庭廊下 西京及諸州郡 亦同日賜醴。”

51) 『高麗史』 卷第18 世家18 毅宗2 丙戌 20년 十一月.

52) 『太宗實錄』 28卷 太宗 14年 12月 1日 庚午.

53) 『世祖實錄』 28卷 世祖 7年 4月 1日 辛未.

대수파련(大水波蓮)	18개	개당 12냥
중수파련(中水波蓮)	44개	개당 10냥
소수파련(小水波蓮)	47개	개당 8냥
월계화 72개, 국화, 유자화, 시자화(柿子花), 가자화, 복분자화, 포도화, 과자화 각 286개. 개당 1냥2전		
홍도삼지화(紅桃三枝花)	3118개	개당 1전7푼
홍도간화(紅桃間花)	8352개	개당 1전
홍도별간화(紅桃別間花)	139개	개당 1전7푼
홍도건화(紅桃建花)	5522개	개당 1전5푼
홍도별건화(紅桃別建花)	148개	개당 2전5푼
산화(散花) 모란화(牡丹花)	600개	개당 9전
홍도삼지화(紅桃三枝花)	600개	개당 3전5푼
홍도별건화(紅桃別建花)	800개	개당 2전5푼

이들 상화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삼층의 대수파련이다. 찬안 한 가운데 꽃아 놓는 대수파련은 밀랍을 사용하여 연꽃잎을 만들고 사이에다 월계와 홍도, 벽도 및 당가화 등을 넣었다고 하였으니, 다른 여러 종류의 가화 제작 기술이 동원된 셈이다. 게다가 “선동 10인이 금은배를 받들고, 위로는 남극노인이 ‘강구연월 수복다남’ 여덟 글자를 들고 있다”고 하였으니 축수와 축도의 의미를 겸하였다. 도식으로 보면 삼층 대수파련에는 연화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꽃들과 함께 봉황과 난새, 벌과 나비 등이 가지에 가득 차 있어서, 여러 가지 가화의 제조 기술이 다양하게 종합된 최고의 가화 완성품으로 보인다.

이런 상화는 각종 찬안마다 구분하여 장식되었는데, 『고종임인년의궤』의 찬안 장식의 상화 규모는 대략 다음과 같다.

- 中和殿進宴 大殿進御大卓饌案 床花 24개: 大水波蓮, 中水波蓮, 紅桃別建花 각 2개, 각색 節花 각 8개, 牡丹花 7개, 紅桃三枝花 3개.
- 大殿進御饌案 床花 15개: 中水波蓮, 牡丹花 각 2개, 紅桃三枝花, 各색 節花 각 3개, 紅桃別建花 5개.
- 大殿進御別行果 상화 14개: 中水波蓮 2개, 牡丹花, 紅桃三枝花, 紅桃別建花, 各색 節花 각 3개.
- 進御味數 初味에서 九味까지 9차, 각 상에 상화 7개씩: 各色 節花, 紅桃三枝花 각 1개, 紅桃別建花 5개
- 皇太子進饌案 상화 15개: 中水波蓮, 牡丹花 각 2개, 紅桃三枝花, 各색 節花 각 3개, 紅桃別建花 5개.

- 皇太子宮進別行果 상화 14개: 中水波蓮 2개, 牡丹花, 各색 節花, 紅桃別建花 各 3개, 紅桃三枝花 4개.
- 觀明殿正日進宴 大殿進御饌案 상화 66개: 大水波蓮, 中水波蓮, 小水波蓮 各2개, 各색 節花 26개, 紅桃三枝花 18개. 紅桃別建花, 紅桃別間花 各 8개.

이러한 궁중이나 왕실의 제수의 진설에 사용된 상화(床花)는 금사(金絲)와 은사(銀絲)를 사용하여 매우 화려하게 제작되었다. 그러므로 선조 33년에는 전물의 상화에 은사로 사용할 여력이 없어 지화(紙花)로 대용한 사례가 있었고,⁵⁴⁾ 인조 때도 왕실에서 상중(喪中)에 진향(進香)을 하면서 찬품에다 금사를 엮어서 단 채화로 장식하는 일을 금하게 하자는 건의를 하기도 하였다.

헌부에서 아뢰기를, “사치의 해는 천재보다도 심하여 비록 풍년이 든 때에도 오히려 경계하고 삼가야 하는데, 더구나 존망이 위급한 때이겠습니까. 삼가 듣건대, 여러 궁가(宮家)에서 진향(進香)할 때 채화(綵花)를 오려 만들어서 금사(金絲)로 엮어 달며, 찬품(饌品)도 아주 번다하다고 합니다. 이 슬프고 공경할 자리에 사치스런 풍습이 있다고 하니, 참으로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지금부터는 깨끗하고 검약하게 하는 데 힘쓰도록 하고 이 규책을 준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가장(家長)을 추고하여 치죄하소서. 제향(祭享)에 꽃을 사용하는 것은 본래 경사(經史)에 보이지 않고, 우리 나라의 『오례의(五禮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크고 작은 제사에 조화(造花)를 쓰지 말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가장을 추고하는 것은 사체가 옳지 않다. 그리고 해사가 지화(紙花)를 만든 것은 소비가 많지 않고 또 이것은 구례이니, 감삭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⁵⁵⁾

성대한 의식에서 가화를 사용하여 상차림을 화려하게 꾸미는 관습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숙종 때는 지사(知事) 이단하(李端夏)의 건의에 의하여 각 능(陵)의 기제(忌祭)에서 유과(油菓)와 과품(果品)에 참가하는 채화를 줄인 일⁵⁶⁾이 있었고, 영조 때도 국상(國恤) 3년 동안의 제수(祭需) 가운데 채화를 사용하지 말자는 논의가 있었고,⁵⁷⁾ 영조 35년 왕세자의 혼례를 당하여 검약의 미덕을 보이기 위하여 “동뢰 연상(同牢宴床) 이외에 대탁상(大卓床)과 소배연상(所排宴床) 및 여러 가지 반상(盤床)의 준화(樽花)와 상화(床花)를 아울러

54) 『宣祖實錄』126卷 宣祖 33年 6月 27日 戊戌

55) 『仁祖實錄』32卷 仁祖 14年 3月 14日 乙未

56) 『肅宗實錄』13卷 肅宗 8年 12月 4日 丁丑; 『肅宗實錄』肅宗大王行狀

57) 『英祖實錄』30卷 英祖 7年 12月 26日 乙卯

제거하도록 하라.”⁵⁸⁾는 명을 내려 준화와 상화를 제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조 조차도 동퇴연에서 상화 사용을 허락한 것처럼 조선 말엽까지 궁중에서 상화를 사용하는 관습은 거의 사라지지 않고 전승되었다.

상화는 궁중의 연회나 제전(祭典)과 같은 중요한 행사 외에도 외국사신을 접대하는 행사에도 사용되었다. 신숙주(申叔舟)의 『해동제국기』에는 일본의 사신이 와서 삼포(三浦)에 체류하는 경우 선위사(宣慰使)가 나아가 접대하는데, “상관인(上官人)과 부관인(副官人)에게는 장거식(長車食) 외에 안주를 차리고, 소일과사행상(小一果四行床)을 배설한다. 정관(正官)도 선위사가 차리는데 다만 한 가지 과실이 없다. 수행원에게는 마제거식칠과상(馬蹄車食七果床)과 지야생화(紙野生花) 3가지, 탕(湯), 점점과(點點果), 대육(大肉)을 차린다.”고 하였고, 또한 서울에 올라와 예조의 접대 규범에 “상관인 부관인은 산자 외에 소일과사행상, 저포화(苧布花)를 차리며, 정관은 장거식사행상(長車食四行床)에 지화(紙花)를 차린다.”고 하였다. 또한 여러 추장의 사신 이하 수행원에게도 “마제거식구과상(馬蹄車食九果床)을 차리는데 모두 네 가지 탕과 점점과와 대육이 있고 지화도 있다”고 하였다.⁵⁹⁾ 숙종 44년 무술(1718) 일본 통신사의 종사관으로 따라간 신유한(申維韓)의 『해유록(海遊錄)』에도 “부산에 도착하니 좌수사 신명인공이 객사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 사신이 흑단령을 갖추어 입고 수사와 마주 앉고 일행의 원역 및 군관 서기가 차례로 좌석을 정하여 화상대찬(花床大饌)을 받았다”고 하였다.⁶⁰⁾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의 상화에 소용되는 비용도 적지 아니하였다. 선조 34년 사헌부에서 올린 건의에 의하면, 사신을 맞이하는 연향 때의 상화에 소용되는 백저포(白苧布)가 100여필이나 되었다고 한다.

무릇 조사를 지대하는 일 가운데 연향의 폐단이 특히 심한데, 연향을 감할 수 없다면 감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상배(床排)하는 찬품(饌品) 가운데 채화(綵花)·밀과(蜜果) 따위를 어찌 구규(舊規)대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숙참(宿站)의 연향에 이르러서는 전부터 으레 허례(虛禮)로 베풀었으니 또한 물력(物力)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두목(頭目)에게 내리는 연향은 그릇 수가 너무 많아 전일 군문(軍門)·경리(經理) 연향 때의 상배(床排)에 비하여 도리어 증가되었습니다. 상화(床花)에 소용되는 백저포(白苧布)가 1백여 필이나 되어 중이로 대응하더라도 수백 권이나 소용됩니다. 이처럼 곤궁하고 탕갈된 시기를 당하여

58) 『英祖實錄』 93卷 英祖 35年 5月 7日 丙戌

59) 『해행총재』 I-156 동상-159.

60) 『해행총재』 I-370.

이러한 형식적인 것은 마땅히 절감해야 합니다.⁶¹⁾

식탁을 장식하는 상화는 민간에도 사용되었다. 성종 때 부평부사 신종흡(申從洽)의 기관(記官) 신종안(申從安)이 백성들에게 양과 돼지, 유기, 상화 등의 값으로 면포 124필을 거두어들인 죄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은 일이 있었다.⁶²⁾

3. 준화(樽花)

준화는 특정 장소를 장식하기 위하여 대형의 가화를 만들어 꽃병에 꽂은 것이다. 고려 의종 때 이미 채봉을 엮고 준화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준화의 사용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다.

조선시대 궁중의 연회에는 연회장의 장식에 대개 준화 한 쌍을 사용하였다. 『고종임인진연의궤』의 <채화도>에는 “준화는 길이 9자 5치인데 홍벽도화(紅碧桃花)로 나누어 장식하여 두 개의 화준에 꽂는다.”고 하였는데, 『배설(排設)』 조의 설명에는 준화는 “황칠로 만든 준대(樽臺)에다 상방당화(尙方唐畫)를 그린 준(樽)을 놓고, 그 안에 백미 1섬을 채워서 홍도 2 가지를 홍남색화주(紅藍色禾紬) 각 2필과 황색 용사(絨絲)로 둘러서 묶는다.”⁶³⁾고 하였다.

고종조의 진연에 사용된 준화는 거기에 꽂는 가화의 높이가 9자 5치이고, 화준의 부피가 쌀 한 섬이 들어갈 만큼이며, 한 쌍을 만드는 경비가 무려 200냥이라고 하였으니, 대단히 큰 가화이다. 채화도에는 단순히 홍벽도화로 나누어 장식한다 하였지만, 도식에 보면 가지가 많이 벌어진 나무에다 잎과 꽃을 무성하게 붙이고, 공작과 봉황, 꿩과 꿩꼬리, 난새와 제비 등의 많은 새들이 나뭇가지 사이에 앉았거나 날아다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만한 크기에 이만한 정도의 가화를 제작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한 번의 잔치에 이런 화준이 여덟 개 이상을 사용하였으니, 조선조 궁중의 연회에서 가화에 들인 공력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순조기축진찬의궤(純祖己丑進饌儀軌)』에는 준화 외에 별가화(別假花)란 이름의 준화가 하나 더 나타나 있다. 가화의 형식은 준화와 대동소이하나 가화의 상단에 학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 독특하다.⁶⁴⁾

61) 『宣祖實錄』 144卷 宣祖 34年 12月 17日 庚辰.

62) 『成宗實錄』 274卷 成宗 24年 2월 19日 甲寅.

63) 『高宗壬寅進宴儀軌』 卷3 排設樽花, “黃漆樽臺二坐 尙方唐畫樽一雙內下 白米一石典膳司 紅桃二本維結 紅藍禾紬各二疋 竝本廳措備 黃絨絲三甲所二良衣尙方.”

64) 『純祖己丑進饌儀軌』上, 卷首 圖式 別假花. 135쪽.

궁중의례와 준화와 달리 민간의 무속에서는 신당(神堂)의 장식에 다양한 종류의 가화(假花)를 사용하였다. 굿당을 장식하는 꽃은 대개 지화로 만든 가화이다. 이런 꽃에는 진달래, 동백, 무궁화, 매화, 모란, 연화, 작약, 국화, 사계화 등의 형태로 만들어 화기(花器)에 묶어서 꽃아 둠으로써 신체를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⁶⁵⁾ 굿당을 장식하는 이런 꽃들은 일정한 제의가 끝나면 모두 불살라 없애지만, 정신의 환생을 의미한다는 데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거대한 준화는 아니지만 조선 후기 선비들 가운데는 가화로 책상을 장식하는 일을 하나의 운치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 조선 중기의 문인 현곡(玄谷) 조위한(趙緯韓, 1567-1649)은 중국에 사행(使行)을 갔다가 조화를 만들어 파는 것을 보았는데 지분(紙盆) 하나에다 홍약(紅藥)과 백매(白梅) 모양의 가화를 구입하여서 책상 위에 놓고 감상하였다.⁶⁶⁾ 조선 후기의 청장관(靑莊館) 이덕무(李德懋)는 밀랍으로 매화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여 『윤희매십전(輪回梅十箋)』⁶⁷⁾을 저술하고, 납화(蠟花)를 만들어 동기(銅器)에 꽃아 서재를 장식하고는 이를 운치 있는 일로 즐겼다.

4. 의장화(儀仗花)

궁중의 의례나 종교 의식, 또는 각종 민속 의례나 연회에서 사용하는 의물 가운데는 가화로 장식된 것이 많이 있었다. 신라와 고려 시대 이래로 궁중에서는 여러 가지 잡희(雜戲)가 거행되었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처용무(處容舞)를 비롯하여 고려시대에도 궁중에서는 채붕(綵棚)을 엮어 놓고 헌선도(獻仙桃), 포구악(抛毬樂) 등의 잡희를 연희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궁중의 잡희에 사용되는 의물(儀物)에는 가화가 많이 사용되었다. 처용무에 사용된 처용탈의 관식(冠飾)에 사용된 가화는 일종의 잠화(簪花)이다. 처용탈의 유래를 알 수 없지만 이 놀이가 고려시대에 이미 궁중에서 널리 연행되었던 점에 미루어 본다면 처용탈의 잠화의 유래는 신라시대까지 소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선시대 궁중의 정재(呈才)에서 여령(女伶)의 수공(首拱)에 수파련(水波蓮)을 사용하고, 한편으로 당가화(唐假花) 하나를 첨가해서 사용한 것이라든지, 무동(舞童)의 수공화(首拱花)로 한 개 당 1냥 7전의 값비싼 가화를 만들어 사용한 것은 처용탈

⁶⁵⁾ 황수로, 1988, 『한국꽃꽃이예술사』, 삼성문화사, 118쪽.

⁶⁶⁾ 趙緯韓『玄谷集』卷5, “有賣造花者 紅藥白梅共一紙盆 其巧逼真 置諸案上而賦之。巧匠能偷造化 栽花白自間紅紅 非緣鄒子吹噓力 豈借韓湘頃刻功 案上相親當臘日 園中却笑向東風 明皇羯鼓還多事 未及書生對一叢。”

⁶⁷⁾ 황수로, 앞의 책, 199쪽.

의 관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조 광해군 때 의금부에서 “악기를 거는 틀이나 여러 가지 형상, 연회를 행하는 일에는 모두 조화(造花)로 장식하는데 본부의 등록(謄錄)에 오른 화장(花匠)은 김충익(金忠翼)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그에게 일을 맡기고 있다. 그런데 충익은 안에서 화등(花燈) 만드는 데에 부리고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이나 그곳에만 나가고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이 사람이 없다면 조화와 관련된 일이 형편없이 될 텐데, 대례(大禮)를 행할 날짜는 임박했으니 김충익을 일 끝낼 동안만이라도 와서 일하게 했으면 좋겠다.”⁶⁸⁾라 요청한 일이 있었다. 이로 보면 악기 장식에도 가화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궤의 악기풍물(樂記風物)조에 보면 잡희에 사용되는 기물 중에 가화를 사용하는 의물이 더러 있다. 헌선도(獻仙桃)의 선도반(仙桃盤), 학무(鶴舞)와 연화대무(蓮花臺舞)의 연화대(蓮花臺), 보상무(寶相舞)의 보상화반(寶相花盤)에 사용하는 석죽화(石竹花) 20송이, 춘앵전(春鶯囀) 등의 연회에서 무동(舞童)들의 복식에 사용하는 금화관(金花冠),佳人전목단(佳人剪牧丹)의 모란화준(牧丹花樽)에 사용되는 모란화(牧丹花) 200송이, 육화대(六花隊)에 사용되는 각색의 수화(繡花) 6송이, 헌천화(獻天花)에 사용되는 헌천화병(獻天花瓶)이 그것이다. 그 중 육화대에 사용한 6송이의 수화(繡花)는 한 송이의 제작비용이 무려 16냥이나 되는 것인데, 어떻게 제작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 외 다른 것은 이미 만들어진 가화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차치하고, 선도반과 연화대가 독자적인 가화 의물로서 의의가 있다.

헌선도의 정재(呈才)는 본디 고려조부터 있었다. 이 정재에는 선도반을 사용하는데, 나무를 다듬어 선도(仙桃) 세 알을 만들고, 가지와 잎을 동철(銅鐵)로 만들어서 은쟁반에 담아서 사용하였다.⁶⁹⁾ 연화대무 역시 고려 때부터 내려온 것으로 두 사람의 여동(女童)이 두 개의 큰 연꽃 속에 들어 있다가 연꽃이 열리면 밖으로 나와 대를 지어 추는 놀이인데,⁷⁰⁾ 여동이 숨을 수 있을 만큼 큰 연꽃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옮길 수 있도록 장치한 것이 연화대이다. 세조 성종 때의 연화대놀이에 “먼저 향산(香山)과 지당(池塘)을 마련하고 주위에 한 길이 넘는 높이의 채화(綵花)를 꽂는다. 또 좌우에 그림을 그린 등롱(燈籠)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유소(流蘇)가 어른거리며, 연못 앞 동쪽과 서쪽에 큰 연꽃 받침

68) 『光海君日記』 126卷 光海 10年 4月 25日 甲寅.

69) 『高宗壬寅進宴儀軌』 卷1 樂章, “桃凡三顆 以木磨成 枝葉以銅鐵爲之 盛之銀盤.”

70) 『高宗壬寅進宴儀軌』 卷1 樂章, “麗朝有蓮花臺舞 用二女童 鮮衣帽 藏二蓮花中 花圻而後見 戴蛤笠 著丹衣 兩隊迭舞. 我朝宴禮 亦倣用之.”

을 놓는데 소기(小妓)가 그 속에 들어 있다.”고 하였다.⁷¹⁾

성종 때의 연화대는 곧 순조조의 『己丑進饌儀軌』에 보이는 지당판(池塘板)이다. 이 의례에 의하면 지당판은 “침상처럼 만드는데, 길이가 5자2치, 너비가 4자 2치, 받침의 높이가 2치5푼, 난간의 높이가 3치5푼이다. 주위에 연꽃과 연잎을 꽃고, 도 화병 7개를 설치하는데 화병의 높이는 9치5푼이다. 여기에는 지화로 만든 전주(全株) 모란을 꽃는다. 전면에 장대를 세우되 장대의 높이는 6자7치이고, 여기에다 칠보 등롱을 단다. 좌우로 대연화통(大蓮花筒)을 설치하는데 통의 높이는 2자 5치”⁷²⁾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조선 후기의 연화대놀이가 조선 전기와 거의 다름없이 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실려 있는 침향춘무(沈香春舞)에 사용하는 침향산(沈香山) 역시 가화를 사용하여 장식하는 의물(儀物)이다. 침향산은 판자를 사용하여 산의 형상을 만들고 절과 탑, 등불, 사슴 등의 여러 형상을 만들어 붙여 채색을 하고, 전면에 연못을 만들고 난간 좌우로 화병을 놓아 꾸미는데, 연못 전면에 두 개의 큰 연꽃을 만들어 좌우로 배치하였다⁷³⁾고 한다.

IV. 결론

한국의 가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신라시대의 만불산(萬佛山)이다. 『삼국유사』에는 침단목으로 가산을 만들어 거기에 산천 궁궐 누대 인물 금수 봉접 초목 화초의 형상을 꾸며서 장식한 만불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왕은 당나라 대종황제(代宗皇帝)가 부처를 숭상하는 것을 알고는 공인(工人)에게 명하여 오색의 용단을 만들고 또 침단목(沈檀木)을 조각하고 명주(明珠)와 이롭다운 옥으로 높이 한 길 남짓한 가산(假山)을 만들어 용단 위에 놓게 하였다. 산에는 바위와 괴석과 시내와 굴이 있는데,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한 구역 안에는 노래하고 춤추는 악대(樂隊)와 산천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다. 미세한 바람이 문을

71) 『용재총화』 제1권, 대동야승 1-22.

72) 『純祖己丑進饌儀軌』 卷首 圖式, “制如寢牀 着彩長五尺二寸 廣四尺二寸 足臺高二寸五分 欄干高三寸五分 周插蓮花及葉 又設花瓶七 瓶高九寸五分 插全株牡丹紙花 前面豎竿 竿高六尺七寸 懸七寶燈籠 左右設大蓮花筒 高二尺五寸。”

73) 황수로, 앞의 책, 101쪽.

통해 들어오면 벌과 나비가 너홀거리고 제비와 참새가 날며 춤추는데 은은하게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였다. 그 가운데 일반 부처를 안치하였는데, 큰 것은 길이 한 치 정도, 작은 것도 8-9푼 정도이며, 그 머리 크기가 혹은 큰 기장 알만하고 혹은 콩 반 쪽 만한데, 나발(螺髮)과 백모(白毛), 눈썹과 눈이 뚜렷하고 상호(相好)를 모두 갖추어 방불하게만 하여 세밀히는 하지 않고서는 이름을 만불산(萬佛山)이라 하였다. 다시금 금과 옥을 조각하여 유소(流蘇)와 깃발과 일산(日傘)과 담복(蓑蓓) 꽃과 과일 등의 장엄을 가득 덮어 놓고, 백보마다 누각과 대와 대궐과 집을 만들었는데, 대체로 비록 미세하지만 형세가 모두 살아 있는 듯이 움직였다. 그 앞에는 빙 둘러 일천 여의 비구(比丘) 상을 만들어 놓았고 그 아래로 금종(金鐘) 세 개를 벌여놓았는데, 모두 종각(鐘閣)을 만들고 포뢰(蒲牢)와 경어(鯨魚)로 종을 치도록 하였다. 바람이 불어 종이 울리면 빙 둘러 서 있는 비구승이 모두 엎드려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은은히 범음 소리가 들리는데, 대개 종에다 기관을 설치한 것이었다. 비록 만불산이라 하였지만 그 실상은 실로 이루다 기록할 수 없었다. 완성되자 사신을 보내어 바치니, 대종(代宗)이 이를 보고는 찬탄하여 말하기를, “신라의 기교는 하늘이 만들어낸 것이지 사람의 기교가 아니로다”하고는 구광선(九光扇)을 바위 메뚜리 사이에 올려 두고는 불광(佛光)이라 하였다. 4월 8일 이면 두 거리의 승려들을 내도량(內道場)으로 불러들여 만불산에 예불하고 삼장(三藏) 불공(不空)으로 하여금 밀부진전(密符眞詮)을 일천 번 염불하게 하여 경축하였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두들 그 기교에 찬탄하였다.⁷⁴⁾

침단목으로 만든 가산(假山)에 대궐과 집이 있고, 꽃과 과일이 있고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모습을 형용하였다고 하였으니, 거기에 나무와 풀과 화초가 갖가지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 사이에 만 개의 부처상을 배치하고 보살들이 빙 둘러 있도록 장식하는 한편 기관에 따라 움직이며, 벌과 나비가 바람에 따라 너울거리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움직이도록 장치하였다고 하였으니, 그 기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 묘사된 만불산의 형상은 침향목을 깎아 산을 만들고 궁실과

74) 『三國遺事』卷第3 塔像 第4 萬佛山, “王聞唐代宗優崇釋氏 命工作五色氍毹 又彫沈檀木與明珠美玉 爲假山 高丈餘 置氍毹之上 山有巉崑怪石澗穴 區隔每一區內 有歌舞伎樂列國山川之狀 微風入戶 蜂蝶翱翔 鶯雀飛舞 隱約視之 莫辨眞假 中安萬佛 大者逾方寸 小者八九分 其頭或巨黍者 或半菽者 螺髻白毛 眉目的 相好悉備 只可髣髴 莫得而詳 因號萬佛山 更鑲金玉爲流蘇幡蓋菴羅蓑蓓花果莊嚴 百步樓閣 臺殿堂榭 都大雖微 勢皆活動 前有旋遠比丘像千餘軀 下列紫金鐘三簾 皆有閣有蒲牢鯨魚爲撞 有風而鐘鳴 則旋遠僧皆仆拜頭至地 隱隱有梵音 蓋關振在乎鐘也 雖號萬佛 其實不可勝記 旣成 遣使獻之 代宗見之 嘆曰 新羅之巧天造 非[人]巧也 乃以九光扇 加置崑岫間 因謂之佛光 四月八日 詔兩街僧徒 於內道場 禮萬佛山 命三藏不空 念讚密部眞詮千遍 以慶之 觀者皆嘆伏其巧。”

누대를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침향산(沈香山)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나무와 새와 짐승들이 바람따라 하늘거리는 것은 또한 수파련이나 거대한 준화, 그리고 사권화 등의 잠화를 상상하게 한다. 고려나 조선 시대의 궁중 연회에서 유소보장을 드리운 지당판이나, 거대한 준화 등의 가화에 모두 벌이나 나비와 새들이 움직이도록 장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신라에서 만든 만불산이 이러한 후대의 의식용 가화의 원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신라시대의 만불산과 마찬가지로 고려와 조선의 궁중의 의례에서 사용된 사권화(絲圈花)를 비롯한 각종 잠화(簪花)와, 수파련(水波蓮) 등 각종 상화(床花)는 단순히 꽃이라는 자연물의 모방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삶의 이상을 나타내었다. 거기에는 꽃의 형태만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꽃과 잎과 과일, 나아가서 꽃에 달려드는 벌과 나비, 나무에 모여드는 갖가지 상서로운 새가 꽃과 함께 제작되고, 이들 하나 하나는 사람의 동작이나 주변의 환경에 따라 생동하는 느낌을 자아내었다. 한국의 가화는 만불산, 지당판, 수파련, 별가화 등과 같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세계를 그려내면서, 한편으로 동적인 생동감을 표현하는데 기술적으로 뛰어난 특장을 발휘하였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고전의례에 사용된 가화의 이상과 기술을 복원하여 발전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Abstract

Types and Features of Korean Artificial Flowers

Hwang, Su Ro

In the history of mankind, there's no place where flowers didn't exist. Flowers have been a symbol of divinity, beauty, prosperity and desire. Natural flowers are a natural purification c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nature. But artificial flowers are a non-natural culmination made based on man's worship for nature. Natural flowers have limits in life and shape because they are govern by the laws of nature. In contrast, artificial flowers can be made by hand in any shape. They also never wither. Artificial flowers an art of expressing beauty, which may be imperfect only with natural means. They have human ideal and desire implied. Flowers made by hand with wholeheartedness are not only an expression of supreme respect for the beauty of nature, but also a visible embodiment of human ideal and desire. In Korea, artificial flowers were used as a crown's ornament or ceremonial article already in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They were made of silk or paper in the Goryeo and Joseon periods to be widely used for royal or private rites and rituals, apparently showing their elaborate, brilliant qualities. Making and using artificial flowers were based on an aesthetic will to perfectly show the very quality of flowers, that is, beauty. For example, Manbulsan, a model mountain whose shape is described in "Samgukyusa", is associated with a true aloeswood mountain because it was made of the same wood and has mounted accessories like a model royal palace and a model tower. Other accessories of the model mountain like model trees, birds and animals all of which are swayed by the wind remind us of Suparyeon, Junhwa as extra large-sized and Jamhwa, for example, Sagueonhwa. At royal banquets in the Goryeo and Joseon

periods, Jidangpan, which was curtained with a floridly tasseled flag, and Junhwa as enormously sized were often used. They had their own device that makes model bees, butterflies or birds move. This suggests that Manbulsan of the Silla period is the origin of artificial flowers for ceremonies of the later ages. Like Manbulsan of the Silla period, various types of Jamhwa, for example, Sagueonhwa which was used for court ceremonies in the Goryeo and Joseon periods and various types of Sanghwa, for example, Suparyeon were not just imitating natural flowers, but representing the ideal of life. In making artificial flowers as foresaid, leaves, bees and butterflies and various kinds of auspicious birds were also artificially made, giving the feeling of liveliness depending on human motions or outside environments. As shown in Malbulsan, Jidangpan, Suparyeon and Byeolgahwa, Korean artificial flowers not only represented an ideal world as, but also had technical features that could excellently express the sense of activity. This suggests the necessity of restoring and developing such ideal and techniques related to artificial flowers which were used for Korean traditional ceremonies.

Key words: Artificial Flowers, Jamhwa(簪花), Sanghwa(床花), Junhwa(樽花), Manbulsan(萬佛山)